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연구

Research Study on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이 리 경*, 주 영 애**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Lee, Ri-Kyung*, Ju, Young-Ae**
Ph.D,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한국문화교육 실시에 필요한 실용적인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는 계절별로 나누었으며. 콘텐츠별 분류는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등의 다섯 분류로 나누었다. 콘텐츠의 분류는 오덕(五德)의 의미를 담아 의례에는 예(禮), 음식에는 의(義), 놀이에는 지(智), 예술에는 인(仁), 축제에는 신(信) 등으로 재조직하여 분류하였고, 그에 맞추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가 실용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문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체험교육콘텐츠 구안을 위해 고문헌 및 선행연구고찰, 체험교육 실태조사를 하였고, 세시풍속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필요성과 목적, 체험교수안 등을 개발하였다.

Ⅱ. 본론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계절별 절기 · 명절에 따른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오덕(五德)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절기별 통합교육 계획안을 구안하였다.

표 Ⅰ-1. 세시풍속 체험교육콘텐츠의 오덕(五德) 분류

계절	절기 · 명절	오덕(五德)의 콘텐츠 분류					
		예(禮) 의례문화	의(義) 음식문화	지(智) 놀이문화	인(仁) 예술문화	신(信) 축제문화	계
봄 (13)	설	●	●	●	●	●	5
	대보름		●	●	●	●	4
	삼짇날		●	●	●		3
	한식	●					1
여름 (9)	초파일		●	●		●	3
	단오		●	●	●	●	4
	유두		●	●			2
가을 (8)	칠석		●		●	●	3
	추석	●	●	●	●	●	5
겨울 (8)	상달		●	●	●	●	4
	동지		●				1
	섣달	●	●		●		3
합계	12개월	4	11	8	8	7	38

표 Ⅰ-2. 콘텐츠 분류에 따른 계절별 통합교육계획안

계절	절기 명절	콘텐츠 분류				
		의례(禮)	음식(義)	놀이(智)	예술(仁)	축제(信)
봄	설	차례,세배,세장	떡국	팽이,제기차기	설날노래	연날리기
	대보름		오곡밥,나물	윷놀이,지신밟기	사물놀이	달맞이횃불싸움
	삼짇날		진달래화전	풀각시호드기놀이	노래배우기	
	한식	성묘,차례				
여름	초파일		비빔밥	탑돌이		연등행사
	단오		수리취,망개떡	창포머리감기, 그네타기	노래배우기	봉산탈춤 천하장사씨름
	유두		수단,전병규아상	유두연,활쏘기		
가을	칠석		밀국수,밀전병		견우와직녀 시	칠성제
	추석	성묘 차례	송편,차례상	농악,윷놀이, 널뛰기,그네뛰기	강강술래 노래배우기	강강술래 소싸움
겨울	상달		김장하기	다례, 다식	한국 차문화	각국의 파티
	동지		동지팥죽			
	섣달	그믐차례	떡국(만두)		시<섣달그믐날 밤>	

Ⅲ. 결론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 교육콘텐츠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유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의 삶에 순응해 왔던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시풍속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심미적 정서 등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공감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세시풍속문화와 생활문화가 세계로 널리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